스코틀랜드, 신축 건물에 토착 조류종 서식을 돕는 '스위프트 브릭' 설치 의무화

https://www.gov.scot/news/landmark-nature-restoration-bill-passed/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6/jan/28/swift-bricks-to-be-installed-in-all-new-buildings-in-scotland-after-holyrood-backs-ruling

https://www.dezeen.com/2026/01/29/swift-bricks-new-buildings-scotland/

https://www.rspb.org.uk/whats-happening/news/scotland-becomes-first-uk-country-to-put-swift-bricks-into-law

앞으로 스코틀랜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의 텃새가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스위프트 브릭(swift brick)'을 활용해야 한다. 지난 1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 법안(Natural Environment (Scotland) Bill)'을 승인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 최초로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연 회복을 법적 목표로 규정한 법안이다.

스위프트 브릭의 '스위프트(swift)'는 영국 토착종인 칼새를 의미한다. 칼새는 건물 틈새나 처마 등의 구조물에 서식지를 만드는데, 현대 건축물에는 둥지를 만들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살아갈 곳을 잃고 있다. 왕립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RSPB)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는 칼새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사라졌을 정도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개체 수가 감소하는 데는 먹이인 곤충의 감소와 기후변화 등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특히 둥지 공간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위프트 브릭은 건물 벽체에 직접 넣어 시공하는 속이 빈 특수 벽돌로, 칼새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설치에 대해서는 기술적·환경적 요건을 고려하되, 원칙적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칼새뿐 아니라 참새와 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지를 꾸리기에 유용한 구조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는 스위프트 브릭 같은 간단하고 저비용의 생태적 조치가 새 개체 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스위프트 브릭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 약 12개월간 기술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 및 자문 과정이 진행된다.

건물에 설치된 스위프트 브릭
출처: RSPB. (n.d.). Swift Bricks – we need action, not warm words. https://www.rspb.org.uk/whats-happening/news/swift-parliament-debate#the-swift-brick(검색일: 2026.3.10.)